

청룡기 우승 내줬지만... 동성고 실력은 최고

전국고교야구 선수권대회

장충고에 7-9 패

초반 싸움 밀리며 고전

김도영, 도루·안타·득점 3관왕

김영현 감투상·최성민 타점·홈런상

동성고, 6개 개인상 싹쓸이

광주 동성고의 청룡기 탈환 도전이 아쉬운 준우승으로 끝났다.

김재덕 감독이 이끄는 동성고가 11일 서울 목동 장야구장에서 열린 제75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장충고와의 결승전에서 7-9로 졌다.

지난 2018년 대회 정상에 올랐던 동성고가 2년 만에 왕좌에 도전했지만 초반 싸움에서 밀리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비로 10·11일 이틀에 걸쳐 결승전이 진행됐다. 10일 1회 실점이 아쉬웠다.

1회초 동성고가 먼저 '한방'으로 점수를 뽑았다.

선두타자 김도영이 몸에 맞는 볼로 살아나가면서 만들어진 1사 1루, '캡틴' 이준범이 좌측 담장을 넘겨 2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어진 수비에서 아쉬운 장면들이 이어졌다.

동성고 선발 박대명이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경기를 시작했다. 이어 3번 안재연에게 안타를 내주면서 베이스가 가득 찼다. 희생플라이로 1점을 내준 박대명이 두 번째 몸에 맞는 볼로 다시 만루 위기에 몰렸다.

동성고가 한범주로 투수를 교체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에 나섰다. 하지만 버트 수비를 하던 한범주의 송구 실책이 나왔다. 이어 포수 김시양의 포구와 송구 실책 등이 나오면서 1회에만 6실점을 했다.

2회초 동성고가 김성도의 2루타로 추격에 나섰다. 김시양의 볼넷 그리고 김도영의 안타로 1사 만루, 김도영과 최성민이 연속해서 볼넷을 골라내면서 밀어내기로 2점을 더했다.

장충고 김우석의 1타점 2루타로 다시 4-7로 벌어진 3회 1사, 임주찬이 몸에 맞는 볼로 나간 뒤 보크와 김성도의 적시타로 홈에 들어왔다.

이후 동성고가 3·4회를 실점 없이 막았지만 볼넷으로 시작한 5회 정준영의 2루타로 실점하면서 5-8이 됐다.

동성고에게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장충고 두 번째 투수 박태강이 105개의 공으로 5.2이닝을 1실점으로 막고 7회를 끝으로



11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결승전에서 동성고 유격수 김도영이 2회말 무사 1루에서 도루를 시도하던 장충고 정준영을 태그아웃 시키고 있다. 김도영은 공격부문 3관왕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몰러났다.

8회초 동성고 선두타자 김도영이 바뀐 투수 양수현을 상대로 우중간 2루타를 터트리면서 공격을 재개했다.

이어 김도영이 3루 쪽으로 번트를 시도한 게 내야 안타가 됐다. 최성민의 볼넷까지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 하지만 이준범과 박건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더하는 것으로 공격이 마무리됐다.

8회말 장충고에게 추가점을 내준 동성고는 9회 공격이 무위로 끝나면서 7-9패를 기록했다.

동성고는 청룡기를 되찾아오지는 못했지만 6개의 개인상을 싹쓸이했다.

투타자로 공격 전면엔 김도영이 도루·안타·득점 부문에서 3관왕에 올랐다. 6차례 베이스를 훔치

며 도루상을 받은 김도영은 14안타, 10득점으로 최다안타상과 최다득점상도 차지했다.

에이스 김영현은 투구수 제한으로 결승전에는 나서지 못했지만 감투상 주인공이 됐다. 세 차례 담장을 넘기며 11타점을 만든 최성민은 타점상과 홈런상을 동시에 차지했다.

◇수상자

▲최우수선수·수훈상=김태정 (장충고) ▲우수투수상=박태강 (장충고) ▲감투상=김영현 (동성고)

▲타점상=박주원 (세광고·11타수 8안타 0.727) ▲타점·홈런상=최성민 (동성고·11타점·3개) ▲도루·최다안타·최다득점상=김도영 (동성고·6도루·14안타·10득점) ▲감독상=송민수 장충고 감독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U18 챔프’ 금호고 나가신다

K리그 챔피언십 14일 포항서 개막...무관중 경기 아프리카 TV 생중계

광주 금호고가 U18 챔피언십 2연패에 도전한다. K리그 유스 선수들의 하계 토너먼트 대회 '2020 K리그 U18 챔피언십(이하 챔피언십)'이 14일 포항에서 시작된다.

금호고(광주FC)와 광양제철고(전남드래곤즈) 등 K리그 산하 고등부 클럽(U18)이 총출동하는 이번 대회는 26일까지 계속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대회가 진행된다.

참가 선수단은 포항 도착 직후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받고, 매일 체온을 측정해 결과를 보고한다. 또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대신 전 경기를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22개 팀이 참가해 총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다. 이후 16강 토너먼트

를 통해 26일 오후 7시 포항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치를 최후의 두 팀을 가리게 된다.

지난해 대회 정상에 오른 금호고는 D조에서 서울E U18(서울이랜드), 충남기계공고(대전), 제주 U18(제주)과 대결한다.

금호고는 지난해 매단고(수원삼성)와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5-3으로 이기며 처음 정상에 올랐다. 광주는 14일 오후 6시 서울E 18팀과 대회 첫 승을 다룬다. 광양제철고는 포항제철고(포항), 개성고(부산), 진주고(경남)와 A조에 묶였다. 전남은 14일 오후 8시 개성고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한편 연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학생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올 시즌에는 U15&14(중등부) 대회, U12&U11(초등부) 챔피언십은 치르지 않고 U18 대회만 운영한다. /김여울 기자 wool@

프로야구 더블헤더 25일부터 시작

KBO리그가 우천취소 경기 증가로 더블헤더 편성 일정을 앞당겼다.

KBO는 11일 2020년 KBO 제6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9월 1일부터 예정됐던 더블헤더 편성을 일주일 앞당겨 8월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혹서기인 7-8월에는 더블헤더를 편성하지 않았지만 올 시즌 유례없는 긴 장마에 우천 취소 경기 증가하면서 일정을 조정했다.

25일 경기부터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될 경우 다음날 더블헤더가 진행된다. 이동일이면 동일대진 둘째 날에 더블헤더를 치른다.

또 기존에 취소된 경기 일부와 11일부터 취소되는 경기는 9월 1일 이후 동일 대진 둘째 날에 더블헤더로 편성한다. 일정은 이번 주중 발표된다.

토·일요일 경기가 노게임이 될 경우 월요일 특별 서스펜디드 경기가 열린다.

주중 더블헤더를 치렀거나 다음 주 더블헤더가 예정되어있더라도 특별 서스펜디드 경기가 적용된다. 대신 중전과 같이 최대 8연전까지만 편성된다.

한편 오는 15·16일 주말 경기가 우천으로 밀려 임시 공휴일인 17일에 편성될 경우, 오후 5시에 경기를 시작한다. /김여울 기자 wool@

맨유, 코펜하겐 잡고 유로파 4강행

연장 전반 5분 극적 페널티킥 성공

인터밀란 4강 진출...2개 팀 미정

18일 결승 진출 놓고 일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이하 맨유)가 연장 접전 끝에 페널티킥 골에 힘입어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4강에 합류했다.

맨유는 11일 독일 쾰른의 라인 에너르기 슈타디온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8강전에서 90분간 득점 없이 이어진 연장 전반 5분 브루누 페르난데스의 페널티킥 결승 골을 앞세워 코펜하겐(덴마크)을 1-0으로 따돌렸다.

2016-2017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맨유는 32강전에서 클럽 브뤼헤(벨기에), 16강전에서 LASK(오스트리아)를 연파한 데 이어 코펜하겐에 신승을 거두고 또 한 번의 우승을 향해 전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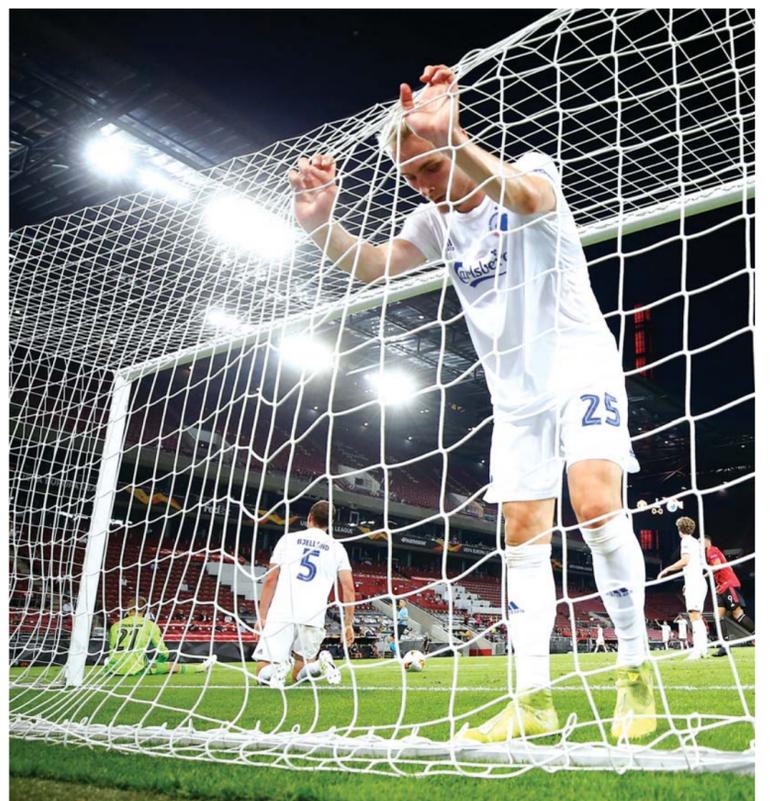
맨유는 12일 열리는 올버헨프턴(잉글랜드)-세비야(스페인) 경기의 승자와 18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결승 진출을 다툰다.

올해 유로파리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6강전이 진행 중이던 3월 중단됐다가 이달 초 재개했다.

8강전부터는 참가 팀들이 독일에 모여 단판 승부를 펼친다.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다른 8강전에서는 유로파리그 3회 우승을 보유한 인터 밀란(이탈리아)이 바이어 레버쿠젠(독일)을 2-1로 물리쳐 준결승에 올랐다.

인터 밀란은 사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바젤(스위스)의 승자와 준결승에서 격돌한다. /연합뉴스



“이건 아니야” FC코펜하겐의 빅터 벨슨이 10일(현지 시간) 독일 라인에너르기 경기장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8강전서 연장 전반 5분 맨유에 골을 내준 뒤 허탈해하고 있다. /연합뉴스